

'바르다 김선생' 갑질…'바르지않다 김선생!'

가맹점에 세척·소독제 등 구매 강요
공정위,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에 물품구매 강요한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18가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토록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고가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해 문제가 된 품목들은 바닥 살균용 세척·소독제나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개별적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들이다. 특히 바르다 김선생은 온라인쇼핑몰 최저가 3만7800원인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판매해 42% 폭리를 취하는 등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이들 물품을 강매했다. 현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만 필수품목으로 인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필수품목 명목으로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질적인 갑질로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바르다 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정보공개서란 부담 비용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다.

공정위는 바르다 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한편 바르다 김선생은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해 올해 10월 말 기준 총 171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분식 가맹사업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현대자동차가 12일 여의도에 소재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AG그룹과 인도네시아에 상용 전문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진출
현지 AG그룹과 합작 법인 설립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알타 그라하(Artha Graha)그룹(이하 AG그룹)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상용차 시장에 진출한다.

현대자동차는 12일 여의도에 소재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AG그룹과 인도네시아에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연간 2000대의 현지 맞춤형 차량을 생산한다. 초기에는 대형트럭 엑시언트와 중형트럭 뉴마이티를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현지에 적합한 신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에 설립될 합작법인을 앞세워 일본 업체들이 장악한 인도네시아 상용차 시장을 본격 공략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인근 동남아 국가로의 판로 개척에도 기여한다. 인도네시아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산 완성차에 대해 30%에서 80%까지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은 아세안 자유무역협약(AFTA)에 따라 무관세로 역내 수출이 가능하다.

현대자동차 상용수출사업부 이인철 전무는 "인도네시아 합작 법인이 양국 경제 협력의 교두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도네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인근 국가 지역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무인 키오스크와 셀프 백드롭 등 첨단 자동화기기를 대거 설치해 수속시간을 대폭 줄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대한항공 탑승수속 카운터.
사진제공 | 대한항공

탑승수속 20분 단축…"빠르고 간편해요"

개항 앞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가보니

1월18일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모습을 드러냈다. 앞으로 제2여객터미널을 사용하는 대한항공은 12일 현재 개장 한 달여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으로 분주한 제2터미널 시설을 언론에 공개했다.

제2여객터미널은 대한한공을 비롯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항공동맹 스카이팀 4개 항공사가 사용하는 전용 터미널이다.

대한항공에서 강조한 제2여객터미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고객사용편의성. 공항서비스의 잣대인 탑승수속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다. 셀프 서비스 존, 일반 카운터, 수하물 전용 카운터 등에 총 62대의 키오스크(무인탑승수속기기)와 고객이 직접 짐을 탁송하는 셀프 백 드롭 기기 34대를 설치했다.

고객접근성도 좋아졌다. 기존에는 공항철도역이 있는 교통센터에서 제1여객터미널까지 이동거리가 223m이었지만, 이번에 59m로 크게 단축됐다.

버스·철도 대합실은 제2여객터미널과 직접 연결된 제2교통센터로 통합배치해 이용객이 실내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탑승수속, 출·입국, 환승 등의 시간이 크게 줄어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대비 출국시간이 평균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하이 클래스 고객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2여객터미널에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했다. 일등석 승객을 위한 프리미엄 체크인 라운지와 프레스티지석 승객 및 밀리언마일러클럽, 모닝캄프리미엄클럽 회원을 위한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를 새로 운영한다.

전용 라운지도 1등석(30석)을 비롯해 프레스티지석 승객을 위한 서편(400석) 동편(200석) 라운지를 운영한다. 비즈니스석을 탑승하는 밀리언마일러클럽 및 모닝캄프리미엄클럽 회원을 위한 130석 규모의 라운지를 별도 운영한다.

인천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2일

코스피지수	2461.00	▼	-10.49
코스닥지수	760.40	▼	-3.69
日 닛케이 지수	2만2866.17	▼	-72.56
中 상하이 종합	3280.81	▼	-41.38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8	▼	-0.01
환율 (원 · 달러)	1092.50	▲	+0.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3715.30	▼	-179.17

오늘의 얼굴

이부진 대표, 해외면세점 1조 시대



호텔신라(대표 이부진·사진)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세계 최대 뷰티면세점으로 떠올랐다. 신라면세점은 12일부터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등 아시아 대표 3대공항에서 화장품. 향수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세계 최대 화장품. 향수 면세점 사업자가 됐다. 내년 첵랍콕 국제공항 면세점이 그랜드 오픈하면 국내 면세점업체 중 처음으로 연간 해외 매출 1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신라면세점은 현재 10월 말 완공한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제4터미널에도 화장품.향수 매장을 오픈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공항면세점 외에 지난해 11월 태국 푸껫 시내면세점과 올 4월 일본 도쿄 등 시내면세점도 차례로 오픈했다.

비즈 TALK TALK

● **"LG 협력업체 상생에 모범"**(김동연 경제부총리, 12일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에서 열린 현장 소통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LG그룹에 상생협력 관련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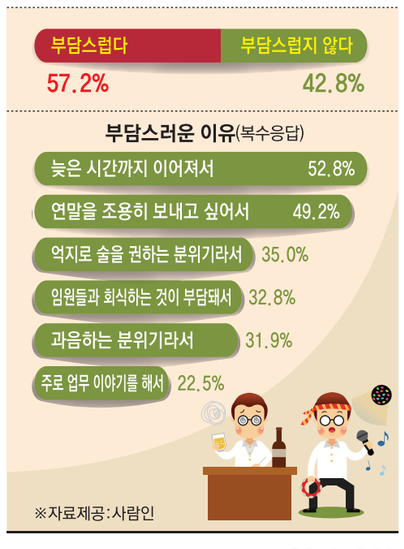
● **"내년 19조 투자, 1만 명 고용"**(12일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LG그룹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의 격려에 대한 LG그룹의 화답)

● **"금융업 감독규정, 금감원으로 넘기면 훨씬 효율적"**(금감원 태스크포스 위원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12일 금융위에 있는 감독규정 제정 개정권을 금감원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발언해 큰 파장)

데이터 경제

직장인 57% "회사 송년회식 부담스럽다"

직장인 5명 중 3명은 회사의 송년 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6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송년 회식 참여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가 57.2%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71.8%)이 남성(49.6%)보다 22%p 이상 높았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서, 연말을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 억지로 술을 권하는 분위기라서, 임원들과 회식하는 것이 부담돼서 등을 꼽았다.



편집 | 이수진 기자

경제현장.jpg

배우 박보검 '2017 한국관광의 별' 공로상 수상



한류스타 박보검이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최 '2017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구르미 그린 달빛'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박보검은 2월 포브스코리아가 발표한 '2017 파워 셀러브리티 1위'에 올랐고, 아시아 8개국에서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한류스타로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한국관광의 별' 화담숲, 광명동굴 등 5개 분야 12개 부문 13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재범 기자·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뷰티·패션·생활용품 업계, 사옥 이전 열풍

아모레 용산, 한샘 상암동 시대 열어

뷰티·패션·생활용품 업계에 사옥 이전 붐이 불고 있다. 리뉴얼, 계열사 간 시너지, 비용절감 등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사옥 이전을 계기로 분위기 쇄신을 기대하는 것은 공통된 바람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옥 이전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넘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기업의 상징성을 나타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뷰티업계의 경우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신본사 준공과 함께 세 번째 용산시대를 열었다.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70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다. 토니모리도 이달 말 서울 서초동 신사옥으로 이전한다. 2015년 금강제화로부터 약 327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신사옥으로 전환한 것으로, 기존 방배동 사옥은 최근 163억원 규모에 매각했다.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도 내년 1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SK트윈테크타워에서 서초동 마제스타시티로 이전할 예정이다.

패션·생활용품 업계에서는 이랜드그룹이 사옥을 옮긴다. 서울 마포구 창전동 신촌사옥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짓기로 확정하면서 서울 금천구 가산사옥으로 임시 이전한다. 당초 서울 마곡에 건축 중인 신사옥에 계열사 모두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건설이 지연되면서 입주시기가 늦춰졌다.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가산동 사옥으로 옮겼다가 2020년 마곡 사옥에 입주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신본사의 '루프 가든'
사진제공 | 아모레퍼시픽

이밖에도 가구업체 한샘도 30여 년 방배동 시대를 접고 이달 지하 5층, 지상 22층 규모의 서울 상암동 팬택빌딩으로 입주한다. 한샘은 5월 1485억원을 들여 팬택빌딩을 인수했다. 이밖에 락앤락도 서울 서초동 마제스타시티로 옮겨 10~12층까지 총 3개층을 사용 중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